

인사말

한국불교 지도자이자 각 종단의 사표로서 가람수호와 불법홍포에 여념없음에 항상 감사드리며, 이렇게 한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강원 영동의 폭설과 갯가지 사건사고에 각 종단들이 불편은 없으신지 안부를 전합니다. 회원 종단 모두가 처한 위치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고 계시리라 믿기에 위안을 삼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해의 노고를 함께 돌아보아 점검하고 새로운 한해의 계획을 상의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무처가 그동안의 행정 경험속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점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단의 사안을 일일이 담아낼 수는 없지만, 여러 종단의 의견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종단 각각의 현안과 사정이 다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널리 알려야겠다는 원력과 신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종단협의회는 그동안 공동 이익을 우선하고 한국 사회에 함께 이루고자 하는 유익한 사업들에 하나의 뜻을 모아 왔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임을 양지해 주시고 공동의 목표에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몇 년만을 비교하더라도 우리 종단협의회는 불교계 본연의 수행정진과 해외 교류사업, 그리고 각종 구호사업과 종교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불교계 최고 지도자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논의하고, 여러 현안을 마주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의지해 온 결과라 여겨집니다.

커진 위상만큼이나 종교적 역할과 책무를 기대하는 사회적 시선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지혜롭게 대처해 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수승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각 종단마다의 주도적 사업들이 신도들의 축복속에서 성취되고, 이러한 성취가 다시 불자들과 국민의 행복으로 고르게 나누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